

새천년 · 새기운 · 대동춤

# New Millennium · New Energy · New Performance

이영희 & 새암춤회  
Lee Young Hee & Sae Arm Dance Company

2000  
10.6(금) · 7시  
7(토) · 5시  
민주공원 중극장



본 공연은 2000년도 유대지원사업 기금을 일부 지원 받아 공연됩니다.

■주관 : 이영희&새암춤회 · 부산광역시 중구청 ■기획 : Atom 예술공연기획 ■후원 : 문화관광부 · 부산광역시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문의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620-4964 · 011-237-4261 · 011-839-9642



## 공연인사 · 안무의도



지난 20세기 현대춤 예술에 있어서 창작 춤은 특히 공연횟수의 양적 증가로 춤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한국 춤의 정체성회복에 관한 지상명제의 과제를 감수하게 되었다.

본 무대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색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춤 재인식을 위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춤의 미적 요소와 특성, 기법적 원리를 토대로 한 동양적 원형질을 단단히 붙잡고 무위적 자연춤을 창안하는데 주력하였다. 사실 한국춤의 독창성은 서구의 현대무용이 표방되기 훨씬 전부터 "자유정신"이 민중춤에 길게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새천년 · 새기운 · 대동춤>은 우리의 허튼춤, 무속의 춤굿을 보듯 그 자유로움에 의지하여 인위적 움직임의 경계를 벗고 물이 흐르듯 자유자재의 춤언어를 연희토록 노력하였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옛부터 춤은 단순히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심신을 닦는 수련으로서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춤 작업과 항상 동반되는 의식은 깨어있는 의식을 요한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2초를 기다리지 않고 달아난다. 그 달아나는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집중되어 머무르고 편안한 자유의 춤, 무아의 춤을 추게 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 감사함은 30여년 독일에서 획기적인 신선한 충격으로 수한 화제를 남긴 Young-Ja Bang-Cho 선생님과 존케이 지곡을 주로 연주하는 Prof. Wulff Gabriele의 특별초청 참여이다. 그리고 오랜동안 같은 상아탑인 경성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의욕적인 작업을 실재없이 발표하고 있는 최은희(경성대학교)교수님과 홍민애 선생님, 이용식(인간문화제 제6호 '부산농악') 선생님의 특별출연이다.

또한 졸업후 기성무용인으로 활동하는 제자들, 재학생 무용수의 열정적인 춤 작업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작품의 무대화를 지원해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2000. 10. 6

李榮 記

삶의 체험을 춤으로 말한다





작

품

개

요

# 새천년 · 새

풍요로운 물질의 뉴 밀레니엄 시대에 요구되는 정신문화는 고갈되어 가는 신명난 축제를 갈구하고 있다. 새 시대 새로운 춤은 이기적 개인주의로부터 탈피하여 공동의 삶에 운택을 충전시키는 강렬한 집단 에너지 춤이어야 한다. 극 무용 『새천년 · 새기운 · 대동춤』은 우리 전통 춤 연희의 축제성을 통한 신명과 공동체 집단 춤 곳의 대동 춤관으로 전개된다.

21세기 모든 국가는 이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론적 시각을 지향해야 한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대립과 투쟁을 원치 않는다. 이제 지구촌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 가족체이다. 새천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가족임을 인지하기 위하여 무대에서의 만남, 무대와 객석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의 춤은 “한가족 · 한마음”을 형성하여 준다.

또한 이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남’은 ‘나’와 같은 것이요, 또한 ‘나’도 ‘남’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한나라에 대비하면 한나라의 사람과 모든 국가는 가히 더불어 갈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나, 국가와 국가,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었으나 자연스럽게 같은 바가 있고 세계의 사람이 모두 갈아 동고동락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염원하는 극무용 본 작품은 3장으로 구성되어 동서양 만남의 무대가 펼쳐진다.



# 기운 · 대동춤



## 1장 · 위험한 밤

불푸는 주로 존케이저 곡을 많이 연주했다. 위험한 밤의 작곡자인 존케이저는 독일 전위 예술가 요셉보이스와 비디오예술의 아버지인 백남준과 친분이 사이로, 그는 동양의 음악에 큰 영향을 받아 작곡의 음이 12음사용을 많이 하였으며 음향 작업과 피아노 조율을 통해 소리를 탁하고 둔하게 변형시키는 작곡을 많이 했으며 메르치 코니하이 존케이저의 작품에 춤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의 음향작업의 물체는 총을 쏘는, 풍선을 터트리는, 옷고 울고, 자동차의 크랙션 소리 등 소음을 중간에 넣는 음향작업 오래동안 소리없는 소리 등 불교의 사상을 많이 받은 현대 작곡자의 아버지다.

그랜드 피아노를 푸른 실크실로 설치한 것은 현대 기계 문명에서 전자로 세계는 엉키고 연결되어 있다. 서로의 화합이 없이 자유롭게 해방될 수 없다. 하모니가 되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연결된 줄에서 나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 설 수 있다. 음악이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며 보이는 곳에서 안보이는 곳, 있는곳에서 없는곳으로 찾아가는 길은 연주곡과 잘 합쳐져 폭동에서 은은한 곳으로 가버린다. 이것은 두사람의 숨이 하나로 이루어 질때에 일어날 수 있다.

이 퍼포먼스는 특별 초청된 Young-Ja Bang-Cho(재독 행위 예술가), Wulff Gabriele(독일 함부르크 콘설바트로 교수)에 의하여 행위 된다. 그 필링은 미니멀한 양식으로 섬세히 전개되면서 점점 객석으로 파급된다.

## 2장 · New Energy의 Method

새 천년을 축원하는 강렬한 메소드의 생음악이 연주된다. 이창규의 토속적 쇠납소리와 특별 초청된 이용식(인간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사물놀이의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타악, 인성, 소리, 연기와 어울리는 극 표현 난장판의 신명을 높이는 축제마당이 펼쳐진다.

신바람 나는 축제의 춤판은 독창적인 한국 전통 춤만이 지니고 있는 미적 요소인 맺고 열렸다간 풀고 어룬다. 그리고 몰아치고 얹어지고 베겨서 쉬고 먹는 여유와 질퍽하고 투박하며 푸근한 흥겨운 풍요로움을 만끽한다. 여기서 우리 춤의 다양한 춤사위의 질과 양을 접하게 된다. 또한 장면이 전환되면서 진정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깃발 무리의 상징적 움직임이 거시적으로 표출된다. 여기에 우리 타악의 다양한 가락과 천지진동을 알리는 대북춤이 특별차조 출연하는 최은희(경성대학교 교수), 홍민애(전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에 의해 전개되고 집단무의 낫다리 밧기로 극표현은 가속화된다.

## 3장 · 기운왕생의 지구촌

발전된 전개부와 종결부에서 '나'와 '남', 국가와 국가,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 지구촌에서 만남을 이루고 공동 평안을 제의적 양식으로 발전시켜 오늘의 혼돈 상으로부터 내일의 평안으로 나아간다. 이때 종결부에서 이영희 솔로 춤은 명상적인 집중력과 심층적인 집약된 행위로 천·지·인이 하나되는 강렬한 에너지적 몸짓으로 시공을 초월한다. 이때 자유자재의 자연춤은 무리춤을 이끌고 생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기운 생동의 자유로운 몸짓 대동 춤판은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각나라의 거대한 깃발이 우주 혹은 오대양을 상징하듯 오방깃발과 함께 어우러져 장렬한 환희심으로 "세계가 한가족"임을 깨닫는다. 총체적인 종횡무진의 무대구성효과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기에 오방색 한지의 반야웅선, 전통색상의 아름다움과 빛의 어울림은 극대화된 표현의 미감을 느끼게되고 보고 즐기는 춤, 느끼고 사색하는 퍼포먼스와 춤을 동시에 접하게 될 것이다.







1989. “달혀 있음에서 열려 있음으로”(문예회관)  
현대 춤 작가 12인전(한국춤협회)  
“나는 없어지고”(문예회관)  
“기원무” 안무(잠실 종합운동장)
1988. 제24회 88서울올림픽 수영요트경기장 개회식 中  
“바다제” 안무(수영요트경기장,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7. 이영희 춤 “실체를 찾아서”(경성대 콘서트홀)  
“기원무” 안무(잠실 종합운동장)
1986. 서울 86 아시안게임 폐회식 中  
“기원무” 안무(잠실 종합운동장)
1985. 호암아트홀 개관기념 한국무용 대공연  
“잠든바다”(호암아트홀)
1985. 중앙일보사 창간20주년 기념공연 “품으로”(호암아트홀)
1984. 일본 오오사카 산케이 신문사 초청 무용공연  
“춘향전”(산케이홀)
1984. 미국 한스빌 시티홀 공연 참가
1984.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공연 참가
1983. 국립극장 상설무대 초청공연 인천시립무용단  
“인천 말뚝이” 안무(국립극장 소극장)
1981. 인천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1981. 중앙대학원 졸업
1972. 일본 시모노세끼 세계 민속무용 예술제 참가  
(동경, 오오사카, 시모노세끼)
1969. 경희대학교 졸업
1968. 세계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문화공보부 파견  
한국민속무용예술단 공연 참가(멕시코, 미국 일본 순회공연)
1968. 제10회 신인예술상 금상(문화공보부)

— 주요 작품 —

- 實體를 찾아서.
- 差別이 없음을 보다.
-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 네와 내것으로부터 벗어나다.
- 일어남 사라짐.
- 제 3의 에너지.
- 삶 그 고통의 끝을 보다.
- 死와 再生
- 常이 없음을 보다
- 바다가 죽어간다
- 〈生命〉, 바다풀이
- 모래주머니 등 다수



전쟁을 원치 않는다



# 특별찬조출연



**최은희** (Choi Eun Hee)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울산시립무용단 안무장
- 춤패 배김새 예술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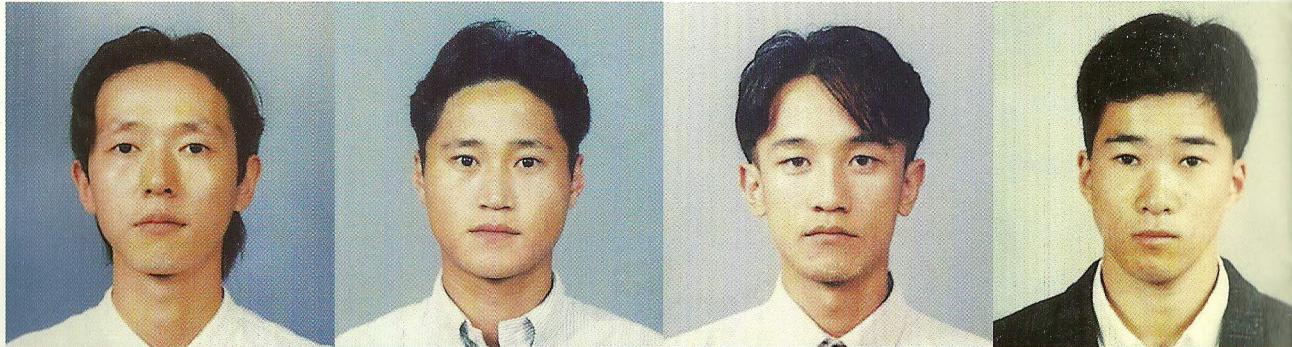
**홍민애** (Hong Min Ae)

- 전/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과 강사

**이용식** (Lee Yong Sik)

- 인간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 부산풍물패



김상현

박현호

이형곤

최정민

## 스텝



찌도/ 윤지은

찌도/ 윤주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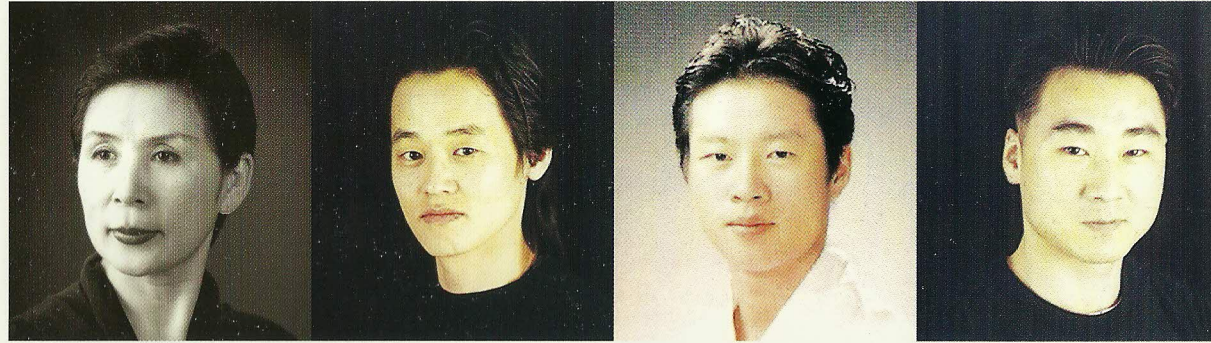
무대미술/ 전혜원

기익/ 전현철



# 출 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새암춤회 예술감독



이영희

김도연

홍석기

이창규



하선주

김경혜

남선주

류호정

장수임

황여주



이동용

오소연

권정희

김혜정

박은지

오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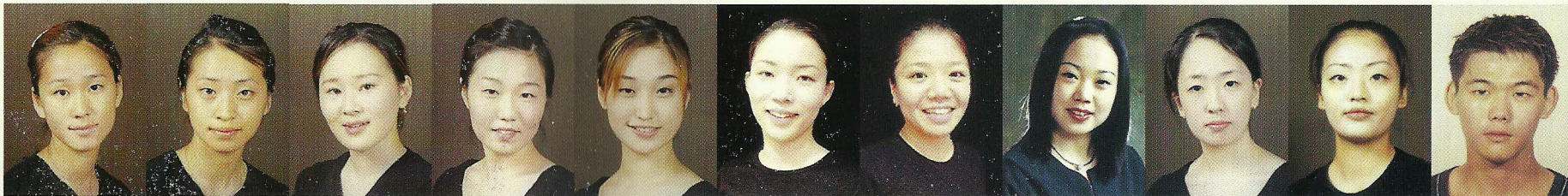
한영주

강혜미

김지혜

김경민

김영찬



김옥희

김지경

신영지

장은아

장현경

정유진

정은민

하정화

허현주

박희선

김종헌